

'22년 1분기 실적발표 Script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씨젠의 IR/PR 실장 이철곤 전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서는, 저와 IR 실무자들이 참석해 있으며, 제품 및 기술 관련 전문적 질문에 대비하여 사내 전문가도 함께 배석해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22년 1분기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최근 당사의 주요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해 설명 드린 후, 향후 전망과 Q&A Session 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기 경영 성과 및 주요 하이라이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매출은 4,515 억원으로 '20년 4분기 매출 4,417 억원을 초과하는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이익 1,997 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44%, 순이익 1,657 억원으로 순이익률은 37%를 기록하였습니다.

첫째,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1개의 채널에서 3개 타겟의 Ct 값을 산출, 1개 튜브에서 총 15개 target 의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3Ct'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첫번째 제품으로 자궁경부암 진단제품인 'Allplex HPV HR Detection' 을 공개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 19는 물론 독감 등 19종의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를 동시 진단할 수 있는 'Allplex RV Master Assay' 제품의 호주 및 유럽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향후 신드로믹 시장의 주력 제품이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대안으로 엔데믹 전환국면에서 스크리닝 제품중심의 타 업체들과의 차별화와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점 설립으로 본격적인 현지향 아프리카 시장공략의 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남아공은 물론 남아프리카 분자진단 시장 확대에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분자진단의 주요 시장인 북반구와 반대 계절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 신설하였고, 당사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ESG 경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분기 경영 실적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분기 매출은 4,515 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 전년동기대비 28% 각각 증가한 성과입니다.

1분기 매출의 전분기 대비 증가는, ASP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전체 test 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한국의 test 수가 전분기대비 거의 2 배 수준 증가한 것이 매출 증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ASP가 높은 유럽 지역 매출 감소 등 Regional mix 변화가 전체 ASP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국내 확진자의 폭증 영향으로 국내 매출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매출 비중도 '21 연간 12%에서 '22년 1분기 28%로 확대되었고, 중남미 지역은 브라질의 플루로나(Flu + Covid) 발생 등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한 반면, 북미와 유럽 지역은 예상보다 빠른 엔데믹 전환과 국가의 코로나 검사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test 수 감소하며 매출 비중도 감소하였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은 재고자산 평가손 및 폐기손 등 재고 관련 비용 반영에 따른 매출원가율 상승 등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약 5%p 하락한 4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고 관련 비용을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율은 50% 이상 수준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 실적을 제품과 상품 Segment 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분기 매출 4,515 억원 중 시약 매출은 3,729 억원으로, 총 매출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비 및 기타 매출은 786 억원으로 17% 비중입니다.

시약 매출 3,729 억원 중 Covid 시약 매출은 3,212 억원으로, 1분기 총 매출의 71%, 시약 매출의 8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Non-Covid 시약 매출은 314 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7%, 시약 매출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기본적인 스크리닝 제품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한 가운데, 당사의 차별화된 기술력이 집약된 신드로믹 제품과 변이진단과 RUO 제품으로 구성된 신제품 매출이 각각 전분기 대비 18%, 16%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특히, 신드로믹 시약 제품은 분기 중 561 억원의 매출을 달성함으로써 '21년 연간 매출 905 억원의 절반 이상 매출을 달성하였고, 신제품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거의 10 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실현하였습니다.

다만, Non-Covid 시약 매출은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Covid 집중 검사 등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매출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는 21%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Living with Corona, 또는 엔데믹 전환 후에는 지속가능한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미래 성장의 기반인 글로벌 장비설치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분기 장비 판매는, 증폭장비인 CFX96 360 대, STARlet, Nimbus 등 추출장비 261 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2년 1분기말 누적 기준으로는 증폭장비 5,214 대, 추출장비 2,573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분기 중 설치된 진단장비 360대 중 국내 설치는 140대, 유럽 지역 설치는 135대이며, 아시아/중아 CIS 지역에도 64대가 추가 설치되면서 분자진단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3Ct 기술 기반의 신제품, 신드로믹 검사 경쟁력 제고와 Non-Corona 제품 및 full automation 솔루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 Ct 기술 및 신제품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는 1개의 채널에서 3개 타겟의 Ct 값을 산출해내는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3Ct 기술을 상용화한 자궁경부암 진단제품인 'Allplex HPV HR Detection' 제품을 출시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에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회사의 분자진단 노하우와 함께 DPO, TOCE, MuDT 등 회사가 보유 중인 19개 특허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이 HPV16, HPV18 2종에 대해서만 개별 Ct 값을 제공하는 반면, 당사의 신제품은 14종의 개별 Ct 값을 통해 각각의 감염 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궁경부암의 예방과 추적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3Ct 기술을 적용하면 동일한 장비로 3배 분량의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용량 검사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3Ct 적용 제품이 확산되면 의료산업의 서비스와 비용 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는 RV(호흡기질환), STI(성매개감염증), GI(소화기감염증), UTI(요로감염증) 등의 기존 제품은 물론 향후 개발될 제품에도 '3 Ct' 기술을 적용할 계획으로, 증상의 원인균과 복합감염 여부 등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고, 감염 정도에 따라 치료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제품 차별화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로 신규시장 진입과 MS 확대에 활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Multiplex 기술력이 집약된 코로나와 호흡기 동시 진단 제품의 판매는 1분기 중에도 시장 성장율을 대폭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당사의 호흡기 신드로믹

시약은 한 번의 검사로 독감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사는 기존 제품 대비 성능이 개선/강화된 Allplex RV Master Assay 를 출시하였습니다. RV Master 의 호주/유럽 인증 등을 통해 코로나의 Endemic 전환시 예상되는 Syndromic Test 시장을 선점해 코로나 스크리닝 시장의 감소를 상쇄해 나갈 예정이며, With Corona 시대를 준비할 최적화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Non-Covid 제품들은 '21 년 연간 기준 YoY 평균 3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STI, GI, HPV 등의 주요 제품의 경우, 일상생활 전환에 따른 수요증가로 견조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향후에도 진단 장비의 확산과 분자 진단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에 따라 당사는 기존 시장을 확대하고 신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신드로믹 스크리닝 시장의 확대에 맞춘 제품들을 지속 개발/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당사가 제공 가능한 다양한 신드로믹 검사 역량을 구현한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사가 21 년 9 월말 발표한 AIOS 는 경쟁사 대비 탁월한 가격 경쟁력, 1/3 수준의 작고 가벼운 장점 등을 통해 중소형병원 등 접근 가능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고, 다양한 신드로믹 검사 적용 가능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샘플 투입부터 결과 분석까지 전자동화 함으로써 진단검사의 가장 큰 문제인 인력 문제를 최소화하고 오염 및 Human Error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STARlet 보유 고객들은 해당 모듈만 설치하면 전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경쟁사 대비 매우 차별화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진단 수요가 작년말부터 큰 폭 증가한 후 3월부터는 전 세계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진단업체들의 코로나 관련 매출은 감소세에 진입했습니다.

강력한 변이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코로나 스크리닝 관련 매출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매출감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자진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한 '생활검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펜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주춤했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사는 코로나와 호흡기 질환을 동시 진단하는 제품으로, 씨젠의 축적된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활검사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인 비용부담을 낮추고 조기 발견 및 치료를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매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생활검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계획 및 Action Plan 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성과 및 결과물은 시장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3 Ct 기술을 기반으로 신드로믹 제품군 확대를 통해 경쟁우위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회사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기술력의 경쟁우위와 분자진단의 대중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더욱 집중력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은 궁극적으로 기존의 유통 법인의 역할을 넘어 미국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직접 연구 및 개발할 것이며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고객에게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미국시장 투자를 통해 가장 큰 분자진단 시장 개척을 통한 매출 성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A 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핵심경쟁력 강화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인수 후보를 검토 중이며, 특히 Living with corona 상황에 대비하여, 사업 성장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 인수에 초점을 두고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특히 매출하락 리스크에 따른 수익성 관리를 위하여 경영 효율화 노력도 시작했습니다. 불요불급한 투자와 지출은 중지하고, 변동성 비용 집행을 최소화하여, 매출 하락기간 동안의 불가피한 수익성 감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항(Disclaimer)]

본 자료에 기재된 현재 당사의 경영 상황, 시장환경, 향후 전망 및 계획 등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예측정보'는 당사의 현재 계획과 전망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투자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투자자 개인의 책임하에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